



# 광남일보



조건 제 806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음력 2월 20일)

## 민형배 '동·서부 발전' vs 김영록 '탕평·균형' 진검승부

6·3지방선거 D-57  
민중 통합시장 결선 전략은

전남·광주 돌며 표심 공략  
신정훈 후보에 연대메시지  
탈락후보 지지층 표심 변수



민형배 김영록

회의원인 만큼 전남으로의 세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서부권의 재생에너지 활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동부권인 순천을 방문해서는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동부권"이라고 강조하며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의 첨단산업 전환과 RE100 기업 유치, 항만·공항을 연계한 물류 거점 육성을 제시했다. 김영록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운영의 핵심 기조로 '탕평과 균형'을 제시하며 자신을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라 강조했다.

특히 탈락 후보들과의 정책 포용을 통해 통합 리더십을 구축할 것을 밝히며 신정훈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강기정 시장의 지하철 2호선 조기 완공 등 주요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도 광주에서 대학생·청년, 사회복지단체, 청년기업 등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 행보로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 특히 두 후보는 경선 탈락 후보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며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형배·김영록 예비후보(기호순)의 결선투표가 확정되면서 두 캠프의 득표 전략이 어떻게 전개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2·8면

두 후보 모두 결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상대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을 찾아 세 확장에 본격화했다. 특히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신정훈 예비후보를 언급, 결선투표의 핵심 키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3~5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자인 민형배·김영록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신정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강기정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신 후보는 막판 역전극을 노렸으나 민형배, 김영록 후보가 구축한 지지세를 뚫는데는 실패했다.

결국 행정통합이란 거대 담론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들이 결선에 오르게 됐다. 양 캠프는 오는 12~14일 치러지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결선까지 6일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표를 가지고 오는가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찾아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전남권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



"공공 차량 2부제를 지켜주세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출찍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광주 서구청사 차량 출입구에 2부제 시행 관련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출찍제)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민원인(방문객)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5·18 헌법 전문 명사...지선때 개헌 국민투표 주목

국무회의서 공고안 심의·의결...국회 의결 등 남아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 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된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다음 달 4~10일 사이 본회의

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된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담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알림

###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9일 오후 6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 호텔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4월 9일 (목) 오후 6시 광주 서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초청 강사는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로 중동 전쟁으로 국내외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 상황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할 예정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초청강사: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주 제: 중동전쟁 이후 경제전망
- △일 시: 2026년 4월 9일 (목) 오후 6시
- △장 소: 브리브광주바이 롯데호텔 대연회장 5층 (구, 라마다호텔)
- △기타사항: 오후 6시부터 석식 제공 (17층 파라뷰)
- △문의: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 △주 최: **광남일보**

### 1인 창업시대...광주·전남 '정체'

신산업 취약 2.4%·2.7% 그쳐...수도권과 격차 확대

광주·전남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창업 기업 수와 매출 등 주요 지표는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중심으로 창업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면서 지역 창업 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1인 창조기업 비중은 각각 2.4%, 2.7%에 그쳐 두 지역을 합쳐도 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역 창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경기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의 57.5%를 차지하며 창업 기업이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42.5%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자본과 인력,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어 창업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 구조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창업한 기업 형태들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지식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농업·농촌업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아 신산업 중심 창업이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창업을 시작하기보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창업 유출'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2면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면

신문의날 휴일로 4월 8일자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Island, Connecting the Ocean and the Future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2026.9.5. 토 - 11.4. 수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